

# 북한의 안중근 인식 변화와 재평가 과정

윤경섭(성균관대학교)

---

## 논문 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에서 안중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과정과 그 의미를 고찰하려는 데 있다. 필자는 북한의 각종 역사서술에 나타난 안중근 관련 내용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역사서술의 변화가 국내외적 정치 환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목하였다. 필자는 초기 북한 역사학계가 안중근 의거를 '애국테러'라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접근하였음을 밝히고 1950년대 말~1960년대 초반 이러한 부정적 관점이 '침략원흉처단'으로 변화하게 된 대내외적 요인, 테러 개념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한편 안중근 재평가 작업은 김일성과 당이 주도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사회적으로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 과정은 김일성의 정치적 위상 제고 과정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중근에게 애국열사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주제어 : 안중근, 이등박문, 북한 역사학, 테러, 애국테러운동, 침략원흉처단, 전쟁범죄

## I. 머리말

1919년 안중근의 이등박문 사살 사건(이하 ‘안중근 의거’)은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를 부정하며 성립한 남북한 모두에게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여 한국의 민족해방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건국 주체들의 항일투쟁을 건국의 정당성으로 선전하는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안중근 의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북한은 1979년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라는 영화가 제작된 바 있고 남포시 남포공원에 안 의사의 독립계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있으며 2004년 9월에는 ‘애국열사 안중근 출생 125돌 우표’가 발행되기도 하는 등 각종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안중근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주의를 끄는데, 2009년 의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북한의 평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sup> 이 글에서는 안중근을 “민족이 기억하는 반일 애국열사”라고 찬양하면서도 결국에는 “개인테러에 매달린 민족의 풍운아”였다는 평가를 담고 있는데, ‘애국열사’와 ‘테러’의 조합은 모순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북한의 안중근 인식에서 이러한 양가적 인식의 형성과정과 그 논리체계, 의미에 대한 이해는 핵심적인 관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안중근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sup>2)</sup> 주로 소설 및 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등 문학예술 분야에 나타난 안중근 인식과 그 정치문화적 함의가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도이다.<sup>3)</sup> 사실

1) 『통일신보』, 2009년 10월 24일(『연합뉴스』(온라인) 2009년 10월 2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25/0200000000AKR20091025027300014.HTML?did=1179m>. 검색일:2014.6.10.).

2) 안중근 의거에 대한 국내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조광의 “안중근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근현대사 연구』, 2000년 봄호)과 신운용의 “안중근 연구의 현황과 쟁점.”(『안중근과 한국근대사』 2, 서울:채륜, 2013) 등의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북한의 근대사 서술에서도 안중근은 중심적인 연구대상이 아니다. 각 근대사 관련 논저에 전명운, 장인환의 스티븐슨 사살, 이재명의 이완용 척살 시도와 함께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단독 논문으로는 1960년대 중반 김영숙이 처음으로 연구성과를 제출한 이후 1980년대 초중반 오길보의 논문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sup>4)</sup>

이 글의 목적은 북한 정권수립 초기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학계의 대표적 저작들과 관련 논문, 역사교과서, 각종 사전 등을 중심으로 안중근 관련 서술의 변화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그 인식 변화 속에 내포된 현실적 의미를 개관하는데 있다. 특히 매시기 북한의 정치적 이념적 환경의 변화와 안중근 의거 평가가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sup>5)</sup>

## II. 초기 북한의 안중근 인식과 변화

### 1. 1945~1950년대의 ‘애국테러운동론’

북한 정부수립 초기 안중근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는 없었지만 역사학계를 주도했던 인사들의 각종 민족해방운동사 관련 논저를 일별해 봄으로써 대략적인 윤곽을 짐작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해방 초기 북한에는 안중근 의거의 성격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계열의 ‘애국

3) 이러한 연구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참고가 된다. 이영미, “안중근의거의 매체적 변용과 동양평화론 : 북한의 연대기적 재인식과 관련하여.” 『평화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정현기, “북한의 안중근 인식.”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2호, 2008.

4) 김영숙, “열렬한 반일 애국렬사 안중근의 생애와 그의 옥중투쟁.” 『력사과학』 제3호,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65; 오길보, “안중근 애국활동의 교훈.” 『력사과학』 제2호,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1; 오길보, “안중근의 애국활동.” 『력사과학』 제4호,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6. 이들 논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할 것이다.

5) 이 논문은 2011년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21세기 동아시아평화와 안중근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글을 보완한 것이다.

테러운동'과 민족주의 계열의 '의거'라는 관점이 혼재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초기 북한 역사학계가 수용한 '애국테러'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안중근 의거의 동기는 애국적이었지만 '테러' 수단을 취하여 민중운동과 동떨어진 개인영웅적 활동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이 개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례는 최창익이다. 그는 ML계 사회주의자로 정부수립 전후에 연안독립동맹 부주석, 부수상 등을 역임하였고 북한 역사학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바 있다. 1946년 『8.15 이전 조선민주운동의 사적고찰』이라는 단행본에서 그는 한일합병 전후 반일의 병운동, 문화적 계몽운동, 애국테러운동이 병진하고 있었으며 안중근이 '애국테러운동'을 대표한 인물이었다고 서술하였다.<sup>6)</sup> '애국테러운동' 개념이 북한 고유의 것인지 혹은 수입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당시 북한에서 이 개념의 정립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최창익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는 1949년에도 다음과 같이 '애국테러운동'의 논리를 설파하였다.<sup>7)</sup>

“이재명·안중근 등의 애국테러운동에 대하여 그들의 열렬한 반일적 애국사상만은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운동의 원리적 관점에 입각한다면 테러운동은 독립운동의 부류에 들 수 없으며 또 그는 독립운동의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말하면 애국적 성격을 가진 테러운동이라 할지라도 그는 정치적 절망에서 표현되는 소극적 행위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타락의 위험성을 가진 행위인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밑줄 필자. 이하 동일함)

이에 따르면 '애국테러운동' 개념을 제기하였던 최창익은 그 본질을 '테러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국테러운동이 독립운동의 방략으로서 부적당하다고 볼 뿐 아니라 “정치적 타락의 위험성을 가진 행위”라고까지 인식하고

6) 최창익, 『8.15 이전 조선민주운동의 사적 고찰』, 혁신출판사, 1946, pp. 12~13.

7) 최창익, “조선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사적고찰.” 『력사제문제』 제6집, 조선력사편찬위원회, 1949, p. 8.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최창익의 사건이 아니라 북한 역사학계 전체가 공유 하였던 것임이 분명하다. 위 글이 게재된 『력사제문제』 6집에는 소련과 역사 학자인 김승화가 저술한 논문이 함께 실려 있는데, 역시 안중근 의거를 ‘애국 테러운동’이라 규정하고 있다. 최창익과 김승화가 모두 조선역사편찬위원회 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개념이 공식 논의과정을 거쳐 나온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월북 역사학자인 이청원도 ‘애국테러’의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 역시 안중근의 투쟁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지만, 봉건영웅적인 개인활동이었 으며 민중과 유리된 것이었다고 비판하였다.<sup>8)</sup>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적의 괴수와 주구를 격살하는 애국테러를 감행 하였으니 ... 이것은 애국사상과 봉건의식의 결부에서 오는 봉건영웅적 개인 활동이었으므로 민중과의 유기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이와 같은 테러 방법은 이미 구체적 사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사회발전의 객관적 법칙이 요구하는 방향과 부합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민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실패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테러운동은 개인적인 행동에 그치고 인민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으며 인민대중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민족해방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여하한 유산도 남기지 못하였다”

북한 역사학계 최초의 독립운동사 연구인 1949년판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도 동일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다. 월북 역사학자인 김정인(金庚寅)은 안중근 의거를 비롯한 ‘애국테러운동’이 “숭고한 애국적인 열정에는 틀림없으며 애국청년의 열혈을 비등시키는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었으나 그들의 행동은 대중운동과 이탈된 고립적인 개인분위의 행동이며 대국적 전망이 결여된

8) 이청원, “20세기초 조선의 대외관계와 국내정형.” 『력사제문제』 제4집, 조선역사편찬위원회, 1948, p. 118.

절망적인 영웅주의적 행동이었다”고 비판하였다.<sup>9)</sup>

역사학계의 ‘애국테러운동론’은 북한 군대의 정신교육에도 적용되었다. 1950년 4월경 작성된 북한군의 대대급 선전원의 교양교재로 사용된 한 필사자료에도 안중근 의거를 역시 ‘애국테러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요약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교재가 대대 내에서 정치사업을 담당하는 문화부대대장의 비준을 받았다는 점에서 ‘애국테러’라는 개념이 북한군대의 공식 입장으로까지 채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애국테러운동’ 개념을 사용한 앞의 논자들은 각각 연안계(최창익), 소련계(김승화), 장안파(이청원), 일본계(김경인) 등 다양한 정치적 출신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 개념이 사회주의 계열에 의해 폭넓게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청원을 제외하면 이들은 북한역사학계를 주도한 교육성 산하 조선역사편찬위원회 출범 당시 위원이기도 하다. 이 개념이 북한 정부 내에서도 공식입장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초기 북한에서 수용된 이 ‘애국테러운동’이라는 용어는 동가사상의 측면과 수단적 측면을 하나의 용어로 통합하여 개념화한 것인데, 수단으로서의 ‘테러운동’을 보다 본질적인 측면으로 보고 ‘애국’적 동기는 부차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정적인 평가로 기울어진 것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평가에는 ‘절망’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자제력과 평정심을 상실한 상태에서 나온 비정상적 행위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이와 같이 안중근 의거를 ‘테러운동’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소련의 혁명사 이해 방식의 영향과 식민지시대 이래 사회주의자들의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테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제정 러시아 말기 ‘인민주의자’에 대한 소련의 평가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보인다. 1949년 북한에 소개된

9) 『조선민족해방투쟁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49, p. 193.

10) “일본 제국주의의 강도적 한일합병과 이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들의 투쟁.”(NARA, Captured Documents, Doc. No. SA 2009 2 Item #53).

‘인민주의자’에 대한 소련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sup>11)</sup>

“농민들의 봉기를 조직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인민파들은 인민 없이 자기들만의 힘으로써 짜리제와 투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짜리와 짜리정부의 저명한 인물들을 해치는 개인적 테로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한 개별적 테로 공격으로써는 짜리 전체정치와 지주계급들을 타도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개별적인 개인들의 영웅적 투쟁이었으나 무익한 투쟁이었다 …… 1881년에 인민파들은 즉 테로분자들은 로씨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를 죽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즉 개개의 인물을 죽이는 것으로서는 전체제도를 파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알렉산드르 2세의 피살과 관련하여 탄압이 내린 후부터 인민파들은 혁명적 투쟁을 거부하게 되었다.”

개별적인 개인들에 의한 테러는 무익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법으로는 전체정치와 지주계급을 타도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탄압에 직면해서는 혁명투쟁의 길에서 벗어나 개량주의적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인식이다.

건국초기 민족해방운동사를 ‘인민사’적 관점에서 재정리하고자 했던 북한 역사학계에서 소련 역사학의 이론과 혁명 해석 방법을 수용하면서 ‘테러’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해방이후 역사학계에 소련계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sup>12)</sup> 이들은 소련을 성장·교육 배경으로 하였기에 개인테러에 의한 체제 전복에 부정적이었던 소련의 혁명역사 해석에 익숙하였고 따라서 안중근의 ‘테러’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을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입장은 소련계 뿐 아니라 당시 최창익을 위시한 과거

11)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인민의 벗들’이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떻게 사회민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가?>에 관하여』, 평양 :북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pp. 14~15; 인용문은 현재의 어법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다. 이하의 인용문 역시 모두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으며 본문 에서는 현재의 어법으로 수정하였다.

12) 1948년 10월 내각 교육성 산하에 조선역사편찬위원회 설치 당시 13인의 상무위원 가운데 소련계는 6명이었으며 산하 최근세사분과위원회에서도 12인의 위원 가운데 5명이 참여하고 있어 역사학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역사제문제』, 평양: 조선역사편찬위원회, 제5집, 1949.

사회주의 운동 출신자들 역시 공유하는 바였다. ‘개인테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식민지시대 이래 사회주의 계열에 의해 널리 수용되어 왔다. 1930년대 코민테른 동양비서부 산하 조선위원회에서 발간한 『콤무니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글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필자인 김단야는 1932년 상해에서 발생한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개인테러’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윤봉길의 행동을 ‘살인’이 아니라 ‘통쾌’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안중근, 이봉창, 강우규 등의 ‘개인테러’는 군중의 조직적 대중적 투쟁을 방해하며 그들에게 환상을 야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발행 주체인 코민테른 동양비서부 산하 조선위원회가 당시 조선의 사회주의 그룹을 망라하고 있었고 해방 이후 북한 정치의 실력자 박헌영이 잡지발간에 가담하고 있었음에 비추어<sup>14)</sup> 김단야의 인식은 해방후 북한 사회주의자들에게 연결되었을 것이다.

결국 해방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자들은 ‘테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안중근 의거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보았듯이 학계의 논의 수준을 넘어서 정부와 군대의 공식 입장으로 정착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초기 북한사회에서 안중근 의거를 ‘테러’ 개념으로 이해하는 논리만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북한사회의 저변에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독립운동을 이해하는 논리도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당시 북한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계열 정당이었던 천도교 청우당의 역사교재 『조선사략』에는 스티븐슨을 사살한 전명운·장인환, 이완용을 척살 시도한 이재명과 함께 안중근을 ‘애국3의사’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sup>15)</sup> 간략한 언급에 불과하지만 ‘의사’라는 규정은 사회주의 계열의 ‘테러

13) 爾友, “상해폭탄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콤무니스트』 6호, 1932년 7월; 한편 이 글의 필자인 이우(爾友)는 김단야라고 한다. 임경석, “잡지 <콤무니스트>와 국제선공산주의자 그룹.” 『한국사연구』 126집, 서울: 한국사연구회, 2004, pp. 193~195.

14) 임경석, 앞의 글 참조.

운동가라는 인식보다 훨씬 긍정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사실 사회주의자들조차 ‘애국’테러운동이라는 모순적 개념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안중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북한 사회의 저변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고 본다.

결국 건국기의 북한에는 안중근을 ‘테러운동가’로 보는 인식과 ‘의사’로 보는 인식이 병존하던 상황에서 ‘테러운동가’로 보는 사회주의계열의 인식이 주류적 견해로 자리를 잡았지만 애국적 성격에 대한 긍정적 입장도 일부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학계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애국테러운동’ 혹은 ‘테러운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안중근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기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55년 고급중학교용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을 계기로 이또에 의한 중세기적 탄압과 야만적 약탈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에 대항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전개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의병들의 투쟁에 고무되어 “안중근, 장인환은 조선 침략의 원흉의 하나인 이등박문과 일본 정부의 앞잡이 스티븐슨을 격살하였다. 매국 대신들도 인민들에 의하여 계속 습격당하였다”고 언급하였다.<sup>16)</sup> 이러한 서술은 몇 가지 점에서 학계의 평가와 큰 차이가 있었다. 첫째 ‘애국테러운동론’자들과 같이 안중근 의거를 독립운동의 주류에서 일탈된 흐름으로 평가하지 않고 항일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sup>17)</sup>, 둘째 ‘테러’라는 용어를 회피하고 ‘격살’ 혹은 ‘습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실관계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기존 역사학계의 ‘애국테러운동론’과 비교해 안중근 의거에 대한 재평가 시도로 독해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변화였다.

15) 『조선사략 - 천도교청우당 강습교재』, p. 33.

16) 『조선력사(고급중학교용)』 (초판),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p. 51.

17) 의병운동을 ‘조선인민의 장구한 해방투쟁의 숭고한 모범’으로 극찬하고 계몽문화운동을 반일 애국운동으로서 거대한 진보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반해 안중근 의거 등을 의병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최창익이 ‘애국테러운동’ 개념 확산을 선도하면서 한일합병 전후 ‘애국테러운동’의 흐름을 의병운동 및 애국문화운동과 별개의 흐름으로 이해했던 것과 대비된다.

그렇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안중근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성격규정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사실 1950년대 중반 안중근 의거에 대한 소극적 평가는 이 교과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역사교과서 용어해설서에도, 노동당이 초급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각종 정치학교의 교재에도, 정치용어 사전에도 안중근 관련 언급은 발견할 수 없다.<sup>18)</sup>

결국 위 교과서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아직 북한 정부와 학계의 공식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한 보다 적극적인 성격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근대사학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었다.

우선 1956년 노동당 3차대회 이후 당에서는 소비에트적 역사해석 편향을 배격하면서 점차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특히 애국주의적 투쟁 전통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었다.

3차당대회 직후 『력사과학』에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근대사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논설이 게재되었다. 이 글의 필자는 역사학계가 10월 사회주의혁명의 영향 등 외부적인 조건 이외에도 근대 혁명운동 발전의 내적인 조건과 계승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sup>19)</sup>

특히 19세기 말에서 3·1운동에 이르기까지 개화사상이 이후 계몽사상으로 계승 발전되어 3·1운동 이전 시기 민족주의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논문들이 “19세기 말로부터 3·1운동에 이르는 기간 민족주의 운동의 혁명적 의의”를 거의 말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19세기 말 ~ 20세기 초반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재평가는 동 시기의 ‘애국테러운동’

18) 『조선력사교과서 용어해설』,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정치학교용 참고자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5;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19)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와 조선 력사연구의 제과업.” 『력사과학』, 평양: 과학원력사연구소, 제4호, 1956, pp. 2~5.

규정에 대한 재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1956년 이른바 ‘8월전원회의사건’으로 북한에 대규모 숙청의 바람이 일게 되었던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초기 근대사 연구를 주도했던 최창익, 이청원 등이 숙청되어 사라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안중근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애국테러운동’이라는 개념이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1958년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 이나영은 안중근 등의 ‘애국테러사건’들이 “이 시기 조선인민의 반일 투쟁의 기본 형태의 하나로는 될 수 없었”지만, “이 애국테러사건들, 그 중에서도 안중근의 이또 격살사건은 이때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한층 자극하여 일정하게 조선인민의 애국심과 반일 투지를 고무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애국심의 일단을 세계에 시위하였던 것”이라고 평가하였다.<sup>20)</sup> 여전히 ‘애국테러’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절망’과 ‘분노’ 등 무절제한 감정의 소산이 아니라 인민의 애국심과 반일의지를 시위한 일대 사건이었다고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라진 것이었다. 이나영의 평가는 안중근에 대한 인식 전환 과정을 반영하는 과도기적 의미가 있었고 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애국테러’라는 개념은 사용되지 않았다.

북한학계 최초의 통사인 1958년 『조선통사』에서는 좀더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이 책에서는 일제에 의한 최종적 조선 강점계획이 실시되던 시기에 “열혈청년들의 테로가 성행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sup>21)</sup>

“테로수단에 의한 침략자와 매국노의 처단은 일본 침략자들을 극도의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일제는 이들의 암살사건을 리용하여 자국 인민의 배외 사상을 선동하는 한편 조선에서 자기들의 주구 일진회를 이용하여 『합병운동』을 추진 시켰다”

20)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 학우서방, 1960. 이 저작은 북한에서 1958년에 출간되어 1960년 일본에서 출판된 것이다.

21) 『조선통사』(중), 평양: 과학원역사연구소, 1958, p. 166.

더이상 ‘애국테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테러수단’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테러수단’에 의한 ‘처단’이 일제 침략자들에게 준 ‘공포’를 강조하면서 그 합리성을 강조하려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비록 개인들의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여 의병운동이나 애국계몽운동 등과 같은 기본적인 반일운동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인민사적인 역사서술을 추구하는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1950년대 중후반 이래 안중근 인식이 점차 ‘테러’수단에 대한 비판에서 그 행위의 정당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강조점이 옮겨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반 안중근에 대한 재평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안중근 의거를 비롯한 각 ‘테러사건’들에 대한 의미부여를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 수집과 추가적인 연구에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 전역이 정치적 격랑에 휩싸였던 상황에서 ‘반당 종파분자’의 거두인 최창익이 주장한 ‘애국테러운동론’을 해체하고 새로운 규정을 하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1961년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펴낸 『조선근대혁명운동사』에서 아직 안중근 의거를 소부르주아 인텔리의 ‘애국적 개인테러’라는 표현과 ‘애국적 의거’라는 표현을 병기하고 있었던 것<sup>22)</sup> 역사학계가 처한 어정쩡한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었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2. 1950년대 말 ~ 1960년대 초반 인식의 전환 : 북일 적대 관계의 원점

1960년 북한에서는 안중근에 대한 재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행문이 출간되었다. 『항일무장투쟁 전적지를 찾아서』라는 이 기행문에는 1959년 5~10월 5개월에 걸쳐 김일성의 청소년 시기 항일활동 지역을 답사하며 채록한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sup>23)</sup>

22) 『조선근대혁명운동사』, 평양: 과학원출판소, 1961(서울: 한마당, 1988).

이에 따르면, 김일성은 1927~28년 겨울 무송과 그 주변부락에서 반일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연예선전대 조직을 주도하였는데, 1928년 1월경에는 간도 무송 제1소학교 부속 조선족반 개교식 경축행사로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라는 연극을 공연하였다. 이때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고 한다.<sup>24)</sup>

“여러분은 이제 연극에서 안중근이가 이등박문을 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자기의 조국을 빼앗긴 사람이 그것을 강탈해간 죄 많은 자를 복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중근이는 강도들의 마수에 희생되었다. ... 자기의 생명을 바쳐 나라를 사랑한 안중근이를 뉘나 없이 동정할 것이다. ...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테 뭉치자! 안중근이는 혼자였기에 그러고 그쳤지만 모두 단결하면 우리의 힘도 강해진다. 이등박문은 죽었어도 침략자는 그냥 남아 있다. 우리는 그 강도 무리들을 조국강토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한다.”

이 연설내용은 당시 행사에 참가했다는 마청산이라는 중국인의 기억을 요약·채록한 것인데 연설의 실제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920년대의 연설이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굴’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며 여기에는 일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안중근 의거를 ‘죄 많은’ 침략자에 대한 망국민의 복수, 즉 단죄와 응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 ‘테러’는 중요 정치적 대자에 대한 구타, 암살 등의 폭력적 방법으로 일국적 정치질서의 전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개념 정의의 틀을 벗어나 제국주의 침략 범죄(crime)에 대한 단죄(punishment)의 의미로 재해석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위 연설 내용은 1950년대 말 ~ 1960년대 초 북한이 안중근 의거의 핵심 문제인 ‘테러’ 개념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었음을

23) 『항일무장투쟁전적지를 찾아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24) 위의 책, p. 14.

반영하고 있다. 이전의 ‘애국테러운동’ 개념에는 ‘테러’가 불법적인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 ‘애국’은 다만 무의미한 수식어일 뿐이었지만, 확장된 새로운 ‘테러’ 개념은 침략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안중근은 ‘테러운동가’로서의 오명을 벗고 침략자에 대한 단죄자로서, 식민지 독립전쟁의 수행자로서, 식민지 인민의 독립의지의 대변자로서 재인식되었고 그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 북한사회에서 왜 안중근에 대한 재평가가 새롭게 등장했을까. 주체적 역사해석의 등장, 애국테러운동론의 전파자인 최창익의 실각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인 요인은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대일관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주지하듯이 1960년 1월에는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으로 일본과 미국은 새로운 차원의 군사동맹관계로 결속되었고 각각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부와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조정 아래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이러한 변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 한반도 재침을 기도하는 일본 군국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을 것이다.<sup>25)</sup> 이와 관련하여 위 연설 내용 가운데 “이등박문은 죽었어도 침략자는 그냥 남아있다”라는 표현은 안중근이 조선의 식민지화를 막지 못 했다는 한계를 강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1950년대 말 ~ 1960년대 초반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sup>26)</sup>

다시 말하면 북한은 1960년대 초반 동북아시아 냉전구도의 형성과 북일관계의 적대적 재편 현실을 목도하면서 북일 적대관계의 원형이라는 정치적

25) 1960년 개정된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서는, “각 계약국은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설정하고 있는 가상적국에 북한이 포함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26) 북한의 대일정책, 특히 한일국교정상화와 관련된 위기의식과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김태운, “북한의 대일정책 변화와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정치, 정보 연구』 제7권 2호, 2004, pp. 111~115.

의미를 안중근 의거를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중근 의거의 의미를 일제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화의 종결점이자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시점으로서 재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안중근 의거를 통해 민중의 반일 투쟁의 역사적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일본 군국주의 재침 기도를 경고하는 현재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결국 과거 일제의 식민지화에 저항하였던 안중근에 대해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북한은 김일성의 소년기 기억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민족해방운동사 서술의 변경은 ‘혁명전통’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었다. 더구나 ‘애국테러운동론’이 ‘반당종파분자’로 숙청된 최창익이 유포한 명제임을 감안한다면 이 테제에 대한 수정과 재평가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당과 수령의 몫이었다. 과거 ‘종파분자’들의 부당한 평가에 의해 ‘테러운동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안중근은 수령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민족영웅으로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중근에 대한 재평가 과정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민족영웅’을 재발견해낸 김일성의 정치적 위상 제고 과정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초반 이후 각종 역사서술에서 안중근 의거는 점차 김일성의 혁명전통과 연계하여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었고 이는 1962년 『조선력사』를 통해 처음으로 채용되었다.<sup>27)</sup> 문학예술 평론 분야에서도 1962년부터 안중근과 김일성의 초기 활동을 연계지어 설명하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이전에도 김일성의 이른바 ‘불후의 고전적 명작’에 관한 평론들은 많았지만 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에 관한 평론은 이 시기에 처음 출현하였다고 한다.<sup>28)</sup> 이 연극은 시기적으로 보면 항일혁명 연극의 효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야 처음으로 관련 평론이 나타났고, 관련

27) 『조선력사』(하), 평양: 동평양인쇄공장, 1962년(학우서방 1963년 번인 발행).

28) 이영미, “안중근 의거의 매체적 변용과 동양평화론.” 『평화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pp. 296~297.

역사서술 역시 1962년에 출현한 점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당이 제기한 새로운 역사인식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 III. 안중근 재평가의 정착과정과 방향

#### 1. 안중근 재평가의 확산

1950년대 말부터 공식적으로 안중근 의거는 ‘테러운동’이 아니라 침략자에 대한 저항과 단죄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지만, 이것이 역사학계의 평가로 정착되고 북한사회에 널리 전파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평가의 내용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북한사회에 전파되고 정착되었을까. 그 전파의 과정을 역사학 논저, 사전, 각종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1960년 『항일무장투쟁전적지를 찾아서』의 출판주체는 조선로동당출판사이다. 이는 당이 안중근 관련 역사인식의 전환을 선도적으로 제기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역사인식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1962년판 『조선력사』인데, 이 교재 역시 당의 역사인식 전파를 목적으로 출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29)</sup> 이 교재에는 반일의병투쟁의 전국적 확대 발전에 고무되면서 침략 원흉들과 매국노들을 처단하려는 애국적 청년들의 대담한 행동들이 국내외에서 적극화되었다고 서술하고 안중근 의거를 ‘애국 청년들의 침략원흉 처단 사건’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들은 인민들을

29) 『조선력사』(하), 동평양인쇄공장, 1962년(학우서방 1963년 번인 발행). 이 역사서의 저자와 발행 배경은 확인할 수 없지만, 중요 내용을 굵은 글자로 표시하거나 소제목을 박스 안에 넣어 강조하는 등 순수 학술서라기보다 대중 역사교재에 가까운 편집형식이 주목된다. 이것은 이 서적이 학계의 연구결과를 담은 역사서가 아니라 변화된 노동당의 역사인식을 전파할 목적으로 출간되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반일투쟁으로 고무 추동하였고 침략자들과 그 주구배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고 서술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테러’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침략원흉’ ‘처단’을 위한 ‘대담한 행동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앞서 김일성의 연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침략범죄’에 대한 ‘응징’과 ‘복수’라는 관점의 전환이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안중근 의거에 대한 김일성의 평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달라진 점이다. 이 교재는 안중근 의거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서술된 최초의 사례라고 판단된다. 이후 북한의 역사관련 서술에서 안중근 의거는 1928년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라는 연극, 당시 김일성이 했다는 연설, 교시와 연계되어 설명되기 시작하였다.

변화된 새로운 해석은 학교교육에도 적극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 북한으로부터 크게 영향 받았을 일본 조총련계 역사교과서에서 이러한 변화를 간취할 수 있다. 1964년 「조선력사」라는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sup>30)</sup>

“의병 투쟁의 양양은 각계 각층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특히 침략자와 매국노의 두목을 처단하여 나라를 구원하려는 애국청년들의 활동이 적극화되었다. 그리하여 1908년 전명운, 장인환 등이 일본의 조건 강점을 도와 주고 있던 미국인 스티븐스를 처단하였으며, 1909년 10월 안중근은 일제 침략자의 두목의 하나인 이도 히로부미를 처단하였고, 동년 12월에는 이 재명이 매국노의 두목인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역시 안중근이 침략자를 처단하여 나라를 구원하려는 ‘애국청년’으로, 그의 의거가 구국을 위한 침략자 ‘처단’으로 재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근대사 학계에서도 안중근 개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안중근 의거에 대한 재평가를 수용해 나아가고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 역사

30)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조선력사(고급학교 제2학년용)』, 학우서방, 1964.

학계에서는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민족주의 운동의 혁명성을 강조하여 왔고, 1965년 5월에도 과학원 역사연구소 근세사 전문가들은 ‘부르주아민족 운동’ 연구를 향후 2~3년 안에 해결해야 할 연구테마로 합의하였다.<sup>31)</sup>

1965년 근대사학자 김영숙의 「열렬한 반일 애국렬사 안중근의 생애와 그의 옥중투쟁」과 황공률의 「20세기 초 사립학교를 통한 애국적 교육운동」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sup>32)</sup> 김영숙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 특히 애국계몽운동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던 연구자였고 황공률 역시 애국계몽운동 연구자였다.

특히 김영숙의 글은 북한 역사학계 최초의 안중근 연구로서 상당히 선구적인 의미가 있었다.<sup>33)</sup> 김영숙은 안중근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애국적 정치 문화운동 지도자들과 연계되어 이들과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따라서 그는 보수적인 북벽론자가 아니라 “개화한 근대적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려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과거 이청원이 안중근의 사상을 ‘영웅주의’와 ‘봉건의식’의 결합으로 인식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었고, 전망이 결여된 절망적인 영웅주의적 행동이었다는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평가와도 달랐다. 안중근은 근대를 지향했던 진보적 사상의 소유자로서 한층 적극적

31) 이 당시 전문가들의 회의에서 합의된 연구 테마로는 19세기말~20세기 초 반일의병운동사, 근대 계몽운동사, 동학과 부르주아민족운동의 호상관계, 갑신정변의 반침략 반봉건적 성격, 갑오개혁의 성격, 갑오농민전쟁의 성격 등 20여개가 있었다고 한다.

32) 김영숙, 앞의 논문, 『역사과학』 제3호, 1965; 황공률, 앞의 논문, 『역사과학』 제3호, 1965. 김영숙은 1961년 『역사과학』 1호에 “19세기말~20세기초 애국문화계몽운동.”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고, 『역사과학』에 “자료 : 애국문화운동에 관한 자료.”(1964년 1호), 신채호의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라는 자료(1965년 3호) 등을 소개하였다. 맑스레닌주의 방송대학 출신인 황공률은 1965년 “19세기말~20세기 초의 애국적 정치문화운동.”이라는 논문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황공률은 위 논문에서 “20세기초 사립학교를 통한 애국적 교육운동.”(『역사과학』, 1965년 4월) 등의 애국계몽운동 관련 연구성과를 내놓았고, 1980-90년대에도 『역사과학』에 애국계몽운동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으며 1990년에는 『조선근대애국문화운동사』(과학백과사전출판사)라는 저작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33) 김영숙은 『독립운동렬사』, 『한국통사』 등과 함께 1946년 남한의 경향잡지사에서 출간된 朴性綱 편 『獨立運動先驅 安重根先生公判記』(京郷雜誌社, 1946)을 인용하고 있다. 이 자료는 1910년 만주일일신문사에서 출판한 공판기록을 번역하고 안중근의 동지인 禹德淳의 懷顧談과 질녀인 安美生의 一問一答을 첨부한 것이다. 김영숙의 글은 자료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조광, 앞의 논문. 본격적인 연구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좌’로 분류되어 게재되었다고 판단된다.

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안중근 의거가 개인적 의분에서 나온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며 안중근이 ‘동양평화’를 지향한 평화주의자, 사상가적 면모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 점도 크게 달라진 것이었다.

특히 1909년 의거에만 주목해왔던 이전의 논자들과 달리 개인사적인 접근을 통해 안중근이 삼흥학교 설립자로 교육문화운동가였으며, 노령 블라디보스톡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황공률의 논문에서도 안중근이 서북학회와 긴밀한 연계 하에 학교설립 활동을 통해 인재의 육성과 의병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근대사학계가 안중근을 근대 반일투쟁사의 흐름 속에서 애국계몽운동 및 의병투쟁과 연계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김영숙 역시 1960년부터 진파되기 시작한 앞서의 김일성 교시를 인용하며 안중근이 “사회 계급적 제약성으로 명확한 투쟁 방침과 정확한 투쟁방법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서술하였지만 전체적인 논조를 보면 이는 큰 의미가 없었다.

역사학계에서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다양한 반일투쟁 이력이 조명되면서 1909년 의거의 ‘테러’는 독립운동의 ‘수단’이었음이 더욱 부각되었다. 물론 여전히 단독적인 ‘개인테러’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대중에 대한 신뢰 부족, 대중과의 연계 및 역량 준비의 부족, 전략전술의 부재 등을 적시하는 서술이 병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개인테러’는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테러’ 개념과 연계된 ‘애국테러’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개념이었다. 이 시기에 북한의 ‘테러’ 개념은 제국주의 및 파시스트의 국제테러 및 국가테러와 이에 대항하는 ‘개인테러’를 준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발간된 『정치사건』에서 ‘테러’ 항목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 항목에는 테러를 ‘국제테러’와 ‘국내테러’, ‘국가테러’와 ‘개인테러’로 구분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국제테러와 국가테러가 더욱 심각하여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이는 ‘테러’에

대한 기초적 유형 분류에 불과하지만 국가가 행하는 테러와 개인의 테러를 구분하고 특히 제국주의가 행하는 ‘테러’의 부당성을 특정하여 강조한 것은 의미 있는 관점의 변화이다. 즉 ‘개인테러’를 대항수단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새로운 안중근 인식은 역사사전 항목에서도 반영되었다. 1971년판 『력사사전』에는 「안중근」과 함께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라는 두 가지 항목을 삽입하였는데 안중근을 “일제의 조선침략의 괴수 이등박문을 쏘죽인 애국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34)</sup>

한편 1960년대 중반 북한 근대사학계는 안중근 의거를 위시하여 일제 강점 직전에 발생한 각종 의거들이 의병투쟁 및 애국계몽운동 등과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 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학계와 교과서의 안중근 의거 서술의 장절 배치가 의병투쟁 혹은 애국계몽운동 혹은 독자적 항목 설정을 오갔다는 데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근대 혁명운동 및 반일운동의 계통적 서술을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안중근 개인이 애국계몽운동에도, 의병투쟁에도 관여했던 데서 혼란을 느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김영숙과 황공률은 애국계몽운동과의 연계성에 보다 주목하는 연구자들이었다. 그러나 학계의 전반적 흐름은 이전과 같이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에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안중근 의거도 그 영향 하에 발생한 것으로 정리되어 갔고 그 가운데 안중근·이재명·장인환 등의 활동은 약간의 차별적인 흐름으로서 독립적으로 서술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근대사학계는 1960년 김일성 연설의 발굴과 공개 이후 안중근 의거를 전통적 테러 개념이 아닌 민족해방운동의 한 수단으로서의 ‘개인테러’ 개념에 입각하여 보게 되었다. 그것은 용어상으로 ‘침략원흉처단’, ‘매국원흉 처단’ 등으로 표현되었다. 새로운 관점은 먼저 당이 그 필요성과 근거를 제기 하면서 대중역사교재에 반영되었으며 뒤에 역사학계에서 이를 수용하고 최종

34)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71년, 1187~1188쪽.

적으로 교과서와 사전항목에도 반영되면서 전파되어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 2. 안중근과 수령론 - 미완의 애국열사

앞서 언급한 1928년 김일성의 안중근 관련 연설 내용이 새롭게 ‘발굴’되어 소개되면서 북한의 안중근 인식은 과거와는 또다른 차원에서 이중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1940~50년대 ‘애국테러운동론’에서 ‘애국’과 ‘테러’, 즉 동기와 수단을 구분하면서 가치평가를 달리하였다면, 1960년대 이후 안중근은 수령 중심의 계서적인 민족해방운동사 인식 속에 편입되면서 ‘애국열사’와 ‘실패한 미완의 투쟁’이라는 이중적 규정 속에 위치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초반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식화하고 이른바 수령론이 체계화하면서 그 모순적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sup>35)</sup> 1960년 김일성의 교시는 대중의 단합된 투쟁을 강조하는 차원이었지만, 1980년대의 안중근 인식은 수령론과 결합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구축되어갔던 것이다. 따라서 ‘애국열사’로서의 안중근의 이미지에 수령의 지도를 받지 못해 실패했다는 식의 교훈이 결합되었다. 특히 1979년 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는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일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평가에 따르면 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에는 김정일의 예술 이론인 이른바 ‘종자론’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작가가 말하려는 사상적 알맹이인 종자가 중요한데, 1928년 김일성의 연극에서의 종자는 ‘이등박문은 죽었어도 침략자는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35) 1980년대 초반은 북한의 정치체제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시기였다.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공식화되고 김정일의 전기가 공식 출간되고 그의 성장과 관련 있는 지역이 혁명사적지로 조성되었다. 이종석, “김정일연구 : 후계자로의 부상과 권력구조 개편.” 『역사비평』 제16호, 서울: 역사비평사, 1991, p. 285. 1980년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주체사상이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명문화되고 ‘온사회의 주체사상화’,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내건 이후 역사학계는 김일성과 그 후계자인 김정일 중심의 ‘주체의 역사’를 체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한다. 광건홍, “북한의 역사연구 방법론 변천.” 『북한의 역사학』(1), 국사편찬위원회, 2002, p. 351.

결국 안중근은 이등박문을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테러’의 방법으로는 일제 침략을 막고 국권회복을 할 수 없었는데, 그 고상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수령의 영도를 받지 못하여 비극적인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sup>36)</sup>

역사학계에서 이와 같은 논리를 편 대표적인 근대사학자는 의병운동 연구자인 오길보였다.<sup>37)</sup> 그는 1981년 「안중근 애국활동의 교훈」이라는 논문에서 안중근이 “지도자의 올바른 영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하여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오길보는 안중근이 “자기의 모든 활동을 대중에게 의거하여 진행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안중근은 의병투쟁을 포기하고 혼자서 적들과 대결하는 ‘테러’에 매달렸다고 한다. 그는 심지어 안중근이 대중에게 의거하지 않고 혼자서 싸우게 된 이유로 외세의존적인 애국문화운동자들의 사상적 영향과 “봉건지주양반의 아들로 농민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던 사상적 영향”도 있었다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과도하였음을 인식하였는지 5년 뒤인 1986년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안중근이 “탁월한 수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싸웠기 때문에 반일투쟁에서 더 큰 승리를 달성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근대역사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적을” 남긴 “당대의 열혈청년, 애국자의 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였다.<sup>38)</sup>

북한 역사학계의 결정판인 1980년 『조선전사』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찾아볼 수 있다.<sup>39)</sup> ‘침략의 원흉과 매국역적에 대한 습격처단’이라는 항목에서

36) 박종원,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종자에 대하여.”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5집, 1984.

37) 오길보, 앞의 논문, 『역사과학』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오길보는 동학농민운동 및 의병운동 연구자로 1961년 “1894~1895년 농민전쟁.”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후 주로 의병운동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집대성하여 최근 『조선근대반일의병운동사』(사회과학출판사, 2010년)를 출간하였다.

38) 오길보, 앞의 논문, 『역사과학』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39) 『조선전사』 제14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pp. 256~265.

망국이 기정사실화되던 시기에 민족운동의 지도이론과 전략전술이 없이 독립분산적인 투쟁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독립투쟁의 길을 모색하면서도 참된 길을 찾지 못하여 모대기고 있던 애국청년들이 비분을 참을 길 없어 침략의 원흉과 매국역적들을 습격 차단하는 ‘개인테러’의 길로 나갔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안중근에 대해서는 “당시 민족운동의 주요 조류였던 애국문화운동에도 참가하였고 의병운동에도 참가한 열혈애국청년”으로 이 운동들을 통해 뜻을 이루지 못하여 “인민을 망국의 비운에서 구원할 정확한 지도이론과 전략전술이 없었던 조건에서 명확한 투쟁방도를 찾지 못하고 침략의 원흉들을 습격 차단하는 것이 반일구국의 가장 주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르렀다”고 하였다.

안중근 등의 애국적 의거는 당시 인민들의 애국심과 반일투지를 고무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단독적인 습격 차단으로 .....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지켜낼 수는 없었다”고 하였다. 필자는 안중근 의거의 교훈으로 “충분한 반일역량의 준비 밑에 옳은 지도이론과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투쟁이 영도될 때만이 민족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박사 이종현도 1984년 동일한 평가를 하였다. 「애국청년들의 ‘원수차단투쟁’이라는 항목을 통해 반일의병도, 애국적 지식인들의 문화운동이나 정치운동도 실패하였을 때 “애국청년들은 비분을 참을 길이 없어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을 습격 차단하는 개인테러의 길로 나갔다고 하고 안중근 등의 이등박문 처단 등은 당시 열혈청년들의 애국적 거사였다고 서술하였다.<sup>40)</sup>

40) 이종현, 『근대조선역사』,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4(서울: 일송정, 1988년 펴냄), pp. 266~267.

“그러나 단독적인 습격처단으로 침략자와 매국노 몇 명을 복수할 수는 있었으나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달성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투쟁은 그 후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충분한 반일역량의 준비 밑에 옳은 지도이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투쟁이 영도될 때만이 민족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었다”<sup>41)</sup>

결국 안중근 의거는 애국적이나 민족해방운동의 역량, 지도이론, 전략전술에 의거한 투쟁의 영도가 없어 실패하였다는 주장이 역사학계에서도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정규교육과정의 역사교육에도 반영되었다. 1982년 『조선력사』에는 안중근 의거를 <sup>42)</sup> 조선인민에게는 통쾌한 복수이며 일제침략자들에게는 큰 공포를 주었던 활동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옳은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옳은 투쟁방도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개인테러’의 방법에 의거하게 되었다는 식의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강화된 이러한 인식은 ‘개인테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1940~50년대의 ‘애국테러운동론’으로 회귀한 듯이 보였다. 실제 1981년 오길보가 안중근의 ‘외세의존적인 애국문화운동자들의 사상적 영향’과 ‘봉건지주양반의 아들’ 운운한 것은 그러한 측면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개인테러’ 규정은 이전의 ‘애국테러운동론’과 분명 달랐다. 우선 ‘테러’의 수단 자체보다는 개인적, 단독적 활동의 한계를 보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달랐다. “비분을 참을 길이 없어” 개인테러로 나갔다고 하는 주장도 역시 ‘애국테러운동론’을 연상시키지만 무절제함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청년의 혈기를 강조하여 지사(志士)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서술이었다.

북한의 안중근 재평가가 수령론과 연결되면서 안중근의 주체적 면모를 휘

41) 이종현, 앞의 책, pp. 268~269.

42) 『조선력사(고등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2, p. 144.

손시키는 측면이 분명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수령론과 연결되었기에 안중근 의거 관련 연구는 더욱 폭을 넓혀 갔고 관련 서술은 양적, 질적 비중을 높여갈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1980년대 안중근 관련 연구는 정치·교육·군사 활동 이외에도 문학 예술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1980년 『조선전사』에서는 안중근이 의거 전날 동료들 앞에서 읊었다는 「만세가」를 통해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몸부림치는” 안중근의 내면세계의 서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이를 ‘반일반침략애국문학’의 사례로 서술하였다.<sup>43)</sup> 또한 의병장 유인석이 안중근의 의거를 듣고 썼다는 「세계 각국에 크게 고하노라」, 유가사학자이며 시인인 김택영의 시 「의병장 안중근이 나라의 원수를 갚았다는 소식을 듣고」 등을 분석하여 안중근 의거를 접한 각계각층 인사들의 찬양과 통쾌한 복수의 감정을 분석하였다.<sup>44)</sup>

교과서에서도 안중근 의거에 대한 비중은 확대되고 있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1984년 이후 고등중학교 2-4학년용 『조선력사』가 새로 출간되었는데, 4학년용 『조선력사』에는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지사들의 투쟁’이라는 독립적 소항목을 통해 안중근 의거를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45)</sup> 안중근 의거 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1994년 고등중학교 4학년 『조선력사』도 이와 동일한 체제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6)</sup> 역시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지사들의 투쟁’이라는 소항목에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이준의 활동과 함께 안중근, 이재명 등 애국청년들이 “개별적인 침략자들과 매국역적들을 습격 처단하는 과감한 투쟁”을 벌였다고 서술하였다. 특히 안중근 의거가 의병운동의 영향 아래 발생하였다는 서술이 사라지고 안중근 자신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었다.<sup>47)</sup>

43) 『조선전사』 제14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pp. 308~309.

44) 위의 책, pp. 293, 309.

45) 이찬희, “북한 ‘조선력사’ 신교과서의 내용분석,” 『사회과교육』 제26집,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993, p. 96, 104, 106. 이 교과서는 이전과 달리 김일성 뿐 아니라 김정일의 교시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달랐다고 한다.

46) 『조선력사(고등중학교 제4학년용)』 (2판),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4, p. 102~105.

각종 대중 출판물에는 안중근 관련 일화가 게재되어 대중에 대한 ‘애국주의’ 교양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1997년 『금수강산』이라는 출판물에는 이등박문 사살 이후 안중근을 변호했던 조선인 변호사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sup>48)</sup> 대중잡지 『천리마』에도 ‘역사인물 소개’ 혹은 ‘역사이야기’ 등의 형식으로 안중근 의거를 다루는 글들이 게재되었다.<sup>49)</sup> 『금수강산』에 소개된 안병찬 관련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안중근이 “나를 이끌어줄 그런 위인, 그런 영웅은 없는가. ... 그런 영웅은 언제나 나타나겠는지”라고 말했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실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개재된 이러한 점들을 제외한다면 북한 대중들의 역사기억 속에 안중근은 역사 위인, 애국열사로서 재생산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중근 의거는 새롭게 조명되면서 더욱 서술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이는 남북한 학계의 연구동향 및 상호 연대 분위기의 고조와 관련된다. 90년대 중반 이후 역사학계에서는 을사조약을 비롯한 각종 조약 체결과정과 그 형식의 불법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 미화 논리에 대항하는 남북 역사학계의 연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식민지화 과정의 불법성 논의는 을사늑약 체결 등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등박문의 침략원흉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주었고 따라서 안중근의 이등박문 사살의 정당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역사교과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1905년 을사조약 체결과정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안중근 의거를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서술되고 있다.

47)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이준의 활동과 애국청년들의 습격 처단이 동일한 범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48) “안중근렬사와 변호사 안병찬.” 『금수강산』 제1호, 1997.

49) “역사이야기-안중근의 의거.” 『천리마』 제10호, 천리마사, 1999; “역사인물 소개 - 반일애국렬사 안중근.” 『천리마』 제8호, 천리마사, 2004.

#### IV. 마치는 말

지금까지 안중근과 그의 의거를 북한의 학계와 역사교과서, 사전 등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해봄으로써 그 인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북한의 안중근 관련 역사인식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면서 정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1940~50년대에는 사회주의계열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부와 역사학계는 안중근 의거 등을 ‘애국테러운동론’의 관점에서 인식하였다. 이는 안중근 의거를 전통적인 ‘테러’의 개념의 틀 안에서 본다는 점에서 극히 부정적인 인식 이었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 안중근 의거는 근본적으로 ‘범죄’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서술 내용 역시 독립운동의 분류에서 일탈한 돌출적 행위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1950년대 말 ~ 1960년 초반 북한은 식민지화 직전 발생한 각종 ‘테러’ 사건들을 침략원흉 및 매국역적에 대한 ‘습격처단’으로 재규정하였고 무의미한 개인의 돌출행동이라기보다는 인민의 반일의지를 표현하고 일제침략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쾌거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는 전후에 미국이 추구해온 일본의 재무장화와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형성의 분위기에서 북한이 가지게 된 위기의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안중근과 그의 의거를 북일간 적대관계의 상징이며 원형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안중근을 망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 애국열사로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종래 안중근에 대한 인식에 걸림돌로 작용 하였던 ‘테러’ 개념도 변화되어 제국주의 침략범죄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의미 확장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여전히 안중근 의거를 ‘개인테러’로 규정하고 이를 한계로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중근과 그의 의거가 20세기 초 식민지화에 저항했던

민중적 투쟁의 역사적 상징이라는 점과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북한이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안중근 재평가 작업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효용가치에 주목하면서 수령론의 틀 안에서 안중근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점이 안중근의 '실패'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내정치적 측면을 제외한다면 북한에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안중근과 그의 의거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온 것이 사실이며 이는 2000년대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와 조선 역사연구의 제과업.” 『력사과학』 제4호, 과학원력사연구소, 1956.
- 곽건홍, “북한의 역사연구 방법론 변천.” 『북한의 역사학』(1), 국사편찬위원회, 2002.
- 김영숙, “열렬한 반일 애국렬사 안중근의 생애와 그의 옥중투쟁.” 『력사과학』 제3호,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65.
- 박종원,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의 종자에 대하여.” 『조선문학』, 문예출판사, 5집, 1984.
- 신운용, 『안중근과 한국근대사』 2, 서울: 채륜, 2013.
- 오길보, “안중근 애국활동의 교훈.” 『력사과학』 제2호,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1.
- 오길보, “안중근의 애국활동.” 『력사과학』 제4호,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1986.
-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 학우서방, 1960.
- 이영미, “안중근 의거의 매체적 변용과 동양평화론.” 『평화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 이종석, “김정일연구 : 후계자로의 부상과 권력구조 개편.” 『역사비평』 제16호, 서울: 역사비평사, 1991.
- 이중현, 『근대조선역사』,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4(서울: 일송정, 1988년 펴냄).
- 이청원, “20세기초 조선의 대외관계와 국내정형.” 『력사제문제』 제4집, 조선력사편찬위원회, 1948, p. 118.
- 임경석, “잡지 <콤무니스트>와 국제선공산주의자 그룹.” 『한국사연구』 제126집, 서울: 한국사연구회, 2004, pp. 193~195.
- 정현기, “북한의 안중근 인식.”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2호, 2008.
- 조 광, “안중근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봄호 (통권 12집), 2000.
- 최창익, 『8.15 이전 조선민주운동의 사적 고찰』, 혁신출판사, 1946.
- 최창익, “조선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사적고찰.” 『력사제문제』 제6집, 조선력사편찬위원회, 1949.
- 『조선민족해방투쟁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49.
- 『항일무장투쟁전적지를 찾아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ABSTRACT

North Korea's perception of Ahn Jung-geun  
and the process of its reinterpretation

Yun, Kyung-Seop(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review the reinterpretation of Ahn Jung-geun (안중근) and his killing of Ito Hirobumi(이등박문) in North Korean history. Until today he has been ranked as a famous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he has also been criticized on the basis of 'terrorism' in North Korea.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North Korea's perception of Ahn Jung-geun by analysis of historical books, journal articles, and history textbooks. Attention is especially paid to the relation of the interpretation with the political environment. In the early stages, North Korea negatively understood An Jung-geun's behavior by using the concept of 'patriotic terrorist movement'(애국테러운동). But in the late 1950's ~ early 1960's North Korea's attitude to An shifted to sympathy for the motive. Hereafter, Ahn Jung-geun's behavior was reinterpreted as a 'punishment of the chief instigator'(침략원흉 처단). Consequently, Ahn Jung-geun was reevaluated as a symbol of Korean's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aggressors. In domestic politics the process of the reinterpretation has been proactive by Kim Il-Sung and the process of the reinterpretation was also intended to upgrade the political status of Kim Il-sung as leader.

Keywords : Ahn Jung-geun, Ito hirobumi, North Korea's history, terrorism,  
patriotic terrorist movement, punishment of the chief instigator,  
war crime

투고일: 2014년 6월 28일, 심사일: 2014년 7월 22일,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5일